

보도일시 (인터넷) 2025. 4. 2.(수) 11:00,
(지면) 2025. 4. 3.(목) 조간

배포 2025. 4. 2.(수) 06:00

경북 울진에 방어 스마트양식장 생긴다

-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방어 스마트양식 시설 등 조성으로 방어 생산량 증대 및 동해안 새로운 소득원 창출 기대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4월 3일(목) ‘기후변화 대응 신규 양식어종 지원’ 사업자로 경상북도 울진군*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 경상북도 울진군 매화면 오산리 일원(토지 41,294㎡, 건물 10,107㎡) 및 북면 덕천리 해역(20ha)

‘기후변화 대응 신규 양식어종 지원’ 사업은 기후변화에 따른 어장 변화에 대응해 차세대 전략 품목을 육성하고 어가의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하기 위해 올해부터 신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자로 선정된 울진군은 ‘울진군 정치망 어업회사법인’과 함께 2028년까지 총사업비 300억 원(국비 90억 원)을 투입하여 최근 수온 상승으로 인해 어획량이 늘어나고 있는 방어를 차세대 양식 품목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난류성 어종인 방어는 주로 일본에서 생산되고 있으나 기후변화로 인해 국내 해역으로 서식지가 이동하고 있어 동해안 중심으로 양식이 가능해지고 있다. 특히, 방어는 지방질이 풍부해 젊은 층 입맛을 사로잡는 등 국민 횡감으로 떠오르고 있어 이번 사업을 통해 일본으로부터 방어 수입 의존도를 낮추고 어업인 소득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사업으로 해상에는 태풍 등 재해 극복이 가능한 부상침하식 가두리 양식시설을 조성하고, 육상에는 스마트양식장 및 윈스톱 가공시설은 물론 종자·중간육성어 대량생산 연구시설도 함께 조성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방어 스마트양식·가공시스템 조성이 국내 방어 생산량 증대뿐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기후변화에 대응해 새로운 양식 품목을 계속해서 발굴·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어촌양식정책관	책임자	과 장	류선형 (044-200-5630)
	양식산업과	담당자	연구관	임상욱 (044-200-5641)



* 현재 방어양식은 어업을 통해 잡히는 치어를 가두리 양식장에서 축양하여 출하하고 있으나 동 사업을 통해 육상(치어 생산 및 냉수대 시기) 및 해상(성어)에서 양식 추진